

제주 월동채소 정책 '풍선효과' 반복

마늘면적 7.6% 감소 대신
 월동무로 쏠리며 8.1% ↑
 대체 작물 제시 못할 경우
 처리난·가격불안 되풀이

올해 제주 서부지역 마늘 재배능력이 월동무로 작목을 전환하면서 월동무 생산면적이 지난해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에 따르면 2020년산 월동무 재배면적은 5990ha로 전년 및 평년대비 각각 1.8%, 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월동무 적정 재배면적 5287ha보다 약 8.5% (703ha) 늘어난 것이다.

이중 국내 월동무 생산량의 약 30%를 점유하고 있는 제주지역인 경우 성산·구좌 등 동부지역 재배면적은 전년 수준과 비슷한 반면 대정·한경 등 서부지역은 8.1%나 증가했다. 이는 서부지역 고령 마늘재배농가들이 올해는 마늘보다 재배가 수월한 월동무로 작목을 전환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도내 마늘 재배면적은 올해에 비해 7.6% 감소했다.

여기에서 제주지역 기상여건 호조로 전반적인 월동무 작황이 평년에 비해 양호해 월동무 생산량은 당초 예상량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고모씨(52·한경면)는 "올해 마늘 가격이 너무 안 좋아서 월동무를 재



쾌청한 날씨속에 선명하게 보이는 추자도와 진도 쾌청한 날씨를 보인 24일 오전 제주시 연동 고지대에서 바라본 제주 최고층 건물인 드림타워 너머로 추자도와 진도 일대가 선명하게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배하게 됐다"며 "월동채소 가운데 무 말고는 마땅하게 심을 작물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앞서 제주특별자치도와 (사)제주월동무연합회, 제주농협은 전국 월동무 재배의향면적 조사 결과 2019년산 대비 3% 감소한 5717ha로 예상됨에 따라 지난 8월 적정재배면적(5287ha)을 유도하기 위해 도내 재배면적을 10% 줄이기로 결의했으나 농

가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지 못하면서 '전시행정'에 그치게 됐다.

농협제주지역본부 관계자는 "제주 지역 무 재배면적이 증가한 것은 태풍 피해로 당근 등에서 무로 작목 전환이 이뤄졌고, 2019년산 출하가 가격이 높았던 한경 등 서부지역의 재배면적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주산 월동무는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출하가 되는데 현재 출하

되고 있는 육지부 가을무와 겹칠 경우 가격 하락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며 "현재 남아있는 육지부 가을무 생산량이 제주산 월동무 가격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편 제주도는 월동채소 과잉생산에 따른 가격불안정을 해소하고 선제적 수급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월동채소 재배면적 신고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제주 지역화폐 '탐나는전' 30일 첫선

도, 종이·카드·모바일형 향후 3년 3700억 규모 발행
 10%할인 혜택... 자영업자·소상공인 매출증대 기대

제주 지역화폐인 '탐나는전<사 진>'이 오는 30일 첫 유통된다. 향후 3년간 3700억원 규모의 지역화폐가 통용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로 지역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심리를 회복시키고 지역경제 선순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지역화폐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상대적으로 경영에 타격을 받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및 골목상권 매출 증대로 지역경제에 '훈풍'이 예상된다. 소비자들은 탐나는전 구매 시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경제적이다.



도에 따르면 올해 발행 규모는 200억원으로 카드형·모바일형 120억원(60%)과 종이형 상품권 80억원(40%)이다. 종이형 상품권 구입 시 10% 할인이 적용되며, 카드형과 모바일형의 경우는 사용 시 10% 포인트 적립된다.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하며 연 말 정산 시에는 사용액 30%까지(전통시장은 40%)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1인당 구매하는 월 70만원이며, 연간 500만 원이다. 한도 초과 시에는 구매해도 내에서 할인이 이뤄지며, 그 이상에 대해서는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만 14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현금으로 구매할 수 있다.

종이형 상품권은 농협과 제주은행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카드형이나 모바일은 탐나는전 전용 앱을 통해 계좌이체를 통해 충전하는 방식으로 구매할 수 있다. 종이형 상품권은 5000원 권, 1만원 권, 5만원 권 등 3종류다. 80% 이상 사용할 경우에는 남은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탐나는전은 제주지역 화폐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소 어디서든 사용이 가능하다. 현재 도내 가맹점은 2300여 개소로 파악됐다. 다만

소상공인(전체 93% 차지)의 매출 감소를 사전 방지하기 위해 사행산업, 불법사행산업,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을 비롯해 도내 5개 대규모 점포, 준대규모 점포, 대기업 직영 프랜차이즈, 종합병원, '중소기업기본법'의 정한 매출액 기준 이상의 업체 등은 가맹점 등록을 할 수 없어 이용이 제한된다.

농협 하나로마트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가맹점 등록에 제한을 받는 상황이다. 하지만 도내 읍면지역 소비자의 이용 편의를 감안해 31곳(동지역 등 17곳 제외)에서는 사용이 가능하다. 아울러 농민에게 특화된 농자재판매장 78곳과 주유소 21곳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한편 도는 오는 30일 도지사 집무실에서 제주도기자협회와 업무협약을 갖고 탐나는전이 성공적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에 대한 업무 지원 및 협력을 도모한다. 특히 이날 도기자협회는 자체 재원으로 지역화폐 1700만원을 구입해 협회 회원들에게 전달함으로써 제주형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해 앞장설 예정이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배·보상 조율 난항... 4·3특별법 개정안 교착국면

24일 이어 25일 법안상정 불발... 내주 논의 재개가 관건

제주 4·3특별법 전면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교착 국면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핵심 쟁점인 배보상 문제와 관련해 부처와의 조율에 난항을 겪으면서 논의에 다시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 4·3희생자에 대한 배보상과 불법군사재판 무효화를 골자로 한 제주 4·3특별법 전면개정안은 지난 17일과 18일 이틀에 걸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됐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재논의를 기대했던 24일 법안소위에

상정되지 않았고, 25일 법안소위에도 상정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4·3특별법 개정안 정기국회 내 처리를 공언한 가운데, 내달 9일로 종료되는 올해 정기국회 의사일정 내 처리를 위해선 법안소위 의결이 시급하지만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정기국회 남은 본회의 일정은

12월 1·2·3·9일 네 차례다. 현재 법안 논의가 행안위 소위에서 주춧거리는 점을 감안하면 물리적으로 4·3특별법 개정안은 내달 1~3일 열리는 본회의 처리는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 기회인 내달 9일 본회의 상정을 위해서는 적어도 다음주 안으로 소위 의결을 거쳐,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마무리해야 한다. 결국 실무선이 아니라 여당인 민주당과 정부 양측 고위급에서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12월1일은 감귤데이
 먹을수록 뽕뽕!
감귤데이
 감귤 12.1
 이기자! 코로나19!

감귤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은 국민 제주감귤 에너지

감귤데이 기념 감귤 기획판매전

2020. 11.27(금)~12.1(화)
 도내 농협 하나로마트